

해적으로부터 안전한 항해를! 우리선박-정부-해군 하나로 뭉쳤다

- 청해부대 46진(최영함) 파병 전,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제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인수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김승찬 (044-200-5857)
담당 부서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책임자	과 장	조윤혜 (02-2100-8565)
		담당자	외무사무관	박태영 (02-2100-6901)
담당 부서	해군본부 공보과	책임자	과 장	오세성 (042-553-6620)
		담당자	소 령	윤상호 (042-553-6623)